http://dx.doi.org/10.22344/fls.2022.87.147

Foreign Literature Studies, 87, 2022. 8

흑인 민권운동 기억하기: 앨리스 워커의 『머리디언』*

강 지 현
단독, 한성대학교 기초교양학부, 조교수

[국문초록]

앨리스 워커는 『머리디언』에서 흑인 민권운동의 유효성을 타진하기 위해 1960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인식변화에 주목하면서 흑인 민권운동이 실제로 흑인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변화상에 주목한다. 1970년대에 이르러 급진적인 흑인 민족주의가 부각되면서 비폭력과 흑백 통합 방식을 강조한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무용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워커는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유효 여부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 기억을 동원한다. 기억이란 현재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의 기억 파편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워커는 흑인 여성 머리디언과 흑인 남성 트루먼, 유태계 백인 여성 린의 과거를 재구성하여 흑인 민권운동을 다층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재구성된 미국의 역사는 수많은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다. 멀리는 미국이 국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희생된 원주민에서부터 가깝게는 흑인 민권운동 참여자까지 『머리디언』에는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으로 가득하다. 머리디언은 이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흑인 민권운동에 가담한다. 이러한 애도 방식은 공동체의 연대로 이어지고 미래에의 희망을 긍정하는 계기가 된다. 흑인 민권운동은 또한 흑인 여성이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긍정하는 계기가 된다. 가부장 사회가 순종적인 딸, 헌신적인 아내, 숙녀, 모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여성에게 수치심과 죄책감을 강요한다면, 흑인 민권운동은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긍

* 본 연구는 한성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과제임.

정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한다. 이처럼 1970년대 시점에서 과거 흑인 민권운동을 재구성하고 기억하는 것은, 흑인 민권운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타진하는 데에도 유효하다.

[앨리스 워커, 『머리디언』, 흑인 민권운동, 기억, 애도]

I. 들어가는 말

앨리스 워커 Alice Waker(1944-)는 1976년에 출판한 두 번째 장편소설 『머리디언 *Meridian*』에서 흑인 민권운동의 유효성을 타진하기 위해 작중 인물 머리디언 Meridian Hill을 중심으로 1960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흑인 민권운동에 대한 인식변화에 주목하면서 흑인 민권운동이 실제로 흑인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 변화상에 주목한다. 조지아 주 이튼튼 Eatonton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가난한 소작농의 막내로 태어난 워커는 여느 남부 흑인처럼 인종차별의 아픔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여덟 살이 되던 해에 오빠가 쏜 비비탄에 오른쪽 눈을 맞고 실명하게 된 사건은 워커 인생의 전기가 된다. 짐 크로우 법 Jim Crow Law[1]과 경제적 여건 때문에 워커는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실명하게 되는데, "애꾸눈 계집"이란 놀림 때문에 눈의 흉터 조직을 제거할 때까지 무려 "6년 동안 고개를 들어 다른 사람을 쳐다보지 않았을" 정도로 철저히 이방인의 삶을 살았다(Walker, 1983: 365, 364). 그러나 이방인의 삶은 워커가 좀 더 면밀하게 세상을 관찰하고 인종차별의 참상과 그 부당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워커는 1955년 로자 팍스 Rosa Parks로부터 촉발된 버스 보이콧 운동과 이후 킹 목사 Martin Luther King, Jr.의 활약을 지켜보면서 "내게 굴욕을 허락한 남부를 끝장내리라" 다짐한다(White, 65). 1961년 재활 장학금 rehabilitation scholarship을 받고 애틀랜타 주 소재 스펠먼 대학 Spelman

1) 대표적인 흑백 분리 정책인 짐 크로우 법은 1896년 플레시 대 퍼거슨 Plessy vs. Ferguson 판결 이후 전국적으로 강화되었다. 흑인과 백인은 '분리되었으나 평등하다 separate but equal'는 논리를 표방하는 짐 크로우 법의 핵심은 흑인에게 열등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Woodward, 18). 워커는 비비탄 사고 당시 아버지의 일 년 수입보다도 많은 250달러나 하는 병원비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짐 크로우 법 때문에 흑인을 치료해주는 안과 전문의를 찾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워커는 결국 치료 시기를 놓치고 실명에 이르게 된다(Plant, 15-17).

College에 입학하고 1964년 새라 로런스 대학 Sarah Lawrence College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면서 워커는 학문에 매진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하게 된다.

『머리디언』에는 흑인의 투표권 독려 운동은 물론이고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 흑인과 백인의 결합 miscegenation 등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하면서 겪은 워커 자신의 실제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1970년대에 이르러 흑인 민족주의가 부각되면서 비폭력과 흑백 통합 방식을 강조한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무용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과거의 흑인 민권운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워커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는 방식이다. 당시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법적 정치적 평등보다 일자리와 주택 등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사회경제적 평등에 더 관심이 많았던 흑인들은 점차 급진적인 운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특히 1968년 킹 목사가 암살된 후, 혁명의 정신이 "일시적 유행"이었던 것처럼 "모두 사라지고 [...] 흑인이나 빈자나 원주민이나 서인도 제도에서 온 불법 이민자 모두 작금의 미국 (자본주의)를 흠모하는"(*Meridian*, 206)[2] 상황에서, 과거의 흑인 민권운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과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탐구하기 위해 워커는 세 명의 민권운동 참여자, 머리디언과 트루먼 Truman Held, 그리고 린 Lynne Rabinowitz을 중심으로 흑인 민권운동의 면면과 이에 따른 개인의 변화상에 주목한다.

워커는「흑인 민권운동: 어떤 소용이 있었나? The Civil Rights Movement: What Good Was It?」라는 글에서 '존재한다'는 것은 '아는 것', 즉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아는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Walker, 1983:125). 현재의 내가 과거의 나와 다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지만,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얼마나 존재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고 오롯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점은 우리의 기억이 선택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거나 왜곡되는 등 불완전하다는 점이다. 역설적이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기억은 우리의 현존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

2) Alice Walker, *Meridian*, Harcourt, 1976. 본 논문에서 이 책을 직접 인용할 경우 별도의 각주 없이 인용문 뒤에 *Meridian*으로 표기하고 쪽수를 병기한다.

> 이제 우리는 사진기가 기록하는 방식처럼 우리가 경험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기억은 다르게 작동한다. 우리는 우리 경험에서 주요 요소를 뽑아 그것을 저장하다. 그런 다음 그 복사본을 검색하는 대신 경험을 재창조하거나 재구성하다. 가끔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감정이나 믿음, 심지어 경험 후에 알게 된 것을 추가하기도 한다. 환원하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사건 후에 얻은 감정이나 지식에 귀속시킴으로써 그 기억을 편향되게 만든다.
>
> We now know that we do not record our experiences the way a camera records them. Our memories work differently. We extract key elements from our experiences and store them. We then re-create or reconstruct our experiences rather than retrieve copies of them. Sometimes, in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we add on feelings, beliefs, or even knowledge we obtained after the experience. In other words, we bias our memories of the past by attributing to them emotions or knowledge we acquired after the event. (Fernyhough, 7)

기억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퍼니하우 Charles Fernyhough의 언급처럼 우리의 기억은 사진기로 사진을 찍어 저장하는 방식과 달리 선택적이며 재구성과정에서 기억이 변형되고 오염, 왜곡된다. 이는 과거가 현재의 영향을 받아 "창의적으로 재구성"되기 때문이다(Fernyhough, 8). 이처럼 기억은 정체된 것이 아니다. 기억은 과거에 관한 것이자 현재에 관한 것이며 동시에 미래의 자신을 연계하는 힘이 있다(Fernyhough, 5-7).

『머리디언』은 파편으로 존재하는 기억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처음에 감각이나 이미지 등 파편으로 존재하는 기억 요소들은 추후 일관성과 논리적 인과관계를 갖춘 서사가 될 수 있도록 재구성된다 (Fernyhough, 96, 193). '머리디언', '트루먼 헬드', '결말 Ending' 3 개의 섹션과 총 3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독 시공간이 자주 바뀌는『머리디언』의 형식적 특징은, 주요 등장인물의 기억이 파편으로 존재하며 이들 기억의 파편 역시 인물마다 상이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구성 방식은 다양한 기억의 파편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에 따라 그 결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드러낸다. 이렇듯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은 소수자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인종의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사회에서 과거를 재구성하는 방식에 따라 '행복한 검둥이

happy darkies' 시절을 그리워하게 할 수도, 인종 평등을 위해 투쟁하려는 "전사"를 꿈꾸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Meridian,* 185).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한 세 명의 등장인물, 흑인 여성 머리디언과 흑인 남성 트루먼, 유태계 백인 여성 린의 기억 파편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그 자체가 과거 흑인 민권운동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이며, 미래의 흑인 사회에 연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주요 등장인물의 파편화된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이 흑인 민권운동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맞닿아 있음을 살펴보고, 나아가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이 개인의 성장은 물론이고 흑인 사회, 나아가 미국 사회 전반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머리디언』연구는 여성주의 womanism 관점에서[3] 젠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머리디언 개인의 성장, 아니면 흑인 민권운동의 유산과 그 한계에 대한 공시적 방식의 연구에 집중되어왔다.[4] 그러나 개인의 삶이 사회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머리디언 개인의 성장과 흑인 민권운동을 분리하지 않고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을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과거 흑인 민권운동을 이해하는 데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3) 여성주의자 womanist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워커는『어머니의 정원을 찾아서: 여성주의 산문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Womanist Prose*』에 이 용어에 4개의 의미가 있음을 설명한다. 워커에 따르면 여성주의자는 1) 지금까지 백인 여성의 입장에 초점을 둔 페미니즘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흑인 페미니즘을 의미하며, 2)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여성을 사랑하는 사람, 3) 음악과 춤, 달, 정신, 사랑, 음식, 부드러움, 투쟁, 사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4) 페미니스트를 의미한다(Walker, 1983:xi−xii). 이처럼 워커가 페미니즘이란 용어 대신 여성주의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젠더 문제만을 강조하는 기존 페미니즘 대신 인종과 여성의 문제를 동시에 바라보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 흑인 민권운동의 유산과 한계에 대해서는 파이퍼 Lynn Pifer, 로릿 Maria Lauret의 논문을 참고할 것. 젠더 관점에서 본 머리디언의 성장에 대해서는 구은숙, 바넷 Pamela E. Barnett, 나델 Alan Nadel, 스타인 Karen F. Stein, 맥고원 Martha J. McGowan의 논문을 참고할 것. 파이퍼는 흑인 민권운동과 기존 권력 구조의 재생산의 관련성에 대해, 로릿은 흑인 민권운동의 한계에 주목하였다. 구은숙은 흑인 모성애 신화와 여성의 정체성 형성의 관련성에 대해, 바넷은 흑인 여성의 인종적 정체성 형성의 문제점에 대해, 나델은 여성의 몸과 국가의 관계 그리고 모성애와 자아 형성의 관계에 대해, 스타인은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 시기 여성의 자아 찾기의 문제에 대해, 맥고원은 흑인 여성의 고통에 주목하였다.

II. 죽음, 그리고 애도의 미학

『머리디언』을 관통하는 기억의 파편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이다. 『머리디언』은 수많은 이들의 죽음으로 점철되어 있는데, 소설 제목이자 주인공 이름 '머리디언' 역시 죽음과 관련 있다. '머리디언 Meridian'은 1964년 미시시피 주에서 흑인의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 시작된 프리덤 써머 Freedom Summer 활동가 제임스 채니 James Channy, 앤드류 굿맨 Andrew Goodman, 마이클 슈워너 Machael Schwerner가 실종된 장소이다(Jones, 180). 죽음의 장소인 '머리디언'은 동시에 시간을 의미한다. 라틴어로 '낮의 가운데'를 의미하는 meridies에서 파생된 'meridian'은 '정점', '최고조', '전성기'를 뜻한다. 『머리디언』의 배경이 비폭력 흑인 민권운동이 급진적인 흑인 민족주의로 전환되던 1960년에서 1970년에 이르기까지 십여 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머리디언'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흑인 민권운동이 죽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희생이 최고조에 이르렀음을 시사한다.

> 메드거 에버스/존 F. 케네디/맬컴 X/마틴 루터 킹/로버트 케네디/체 게바라/패트리스 루뭄바/조지 잭슨/신시아 웨슬리/애디 매 콜린스/드니스 맥네어/캐롤 로버트슨/바이올라 리우조
>
> 죽음으로 점철된 10년이었다. 폭력적이고 피할 수 없었다. 장례식이 뇌리에 새겨지면서 삶의 덧없음이 심화되었다. 그 10년은 남부의 많은 사람들에게 떡갈나무가 바람에 그들의 짐에 대해 한숨을 내쉬고, 스페인 이끼가 피투성이가 되어 땅에 질질 끌리고, 교회 신자석이 슬픔으로 삐걱대고, 견딜 수 없는 상실을 다시 한번 견딜 수 있다는 전율이 조문객들에게 심오한 황홀감을 불러일으킨 지난 시절을 상기시켰다. [...] 기억될 수 있도록 그들은 사자를 위한 의식을 공유했다.

> MEDGAR EVERS/JOHN F. KENNEDY/MALCOLM X/MARTIN LUTHER KING/ROBERT KENNEDY/CHE GUEVARA/PATRICE LAMUMBA/GEORGE JACKSON/CYNTHIA WESLEY/ADDIE MAE COLLINS/DENISE MCNAIR/CAROLE ROBERTSON/VIOLA LIUZZO
>
> It was a decade marked by death. Violent and inevitable. Funerals became engraved on the brain, intensifying the ephemeral nature of life. For many in the South it was a decade reminiscent of earlier times, when oak trees sighed over their burdens in the wind; Spanish moss

> draggled bloody to the ground; amen corners creaked with grief; and the thrill of being able, once again, to endure unendurable loss produced so profound an ecstasy in mourners. [...] They shared rituals for the dead to be remembered. (*Meridian*, 21)

1960년부터 1970년에 이르는 십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는가를 보여주는 위 인용문은 그야말로 참혹하기 그지없다. 흑인의 투표를 독려하는 흑인 민권운동가의 참혹한 죽음이 극대화되는 것은 바로 린칭 lynching의 방식에 있다. KKK단을 필두로 남부 백인 사회가 자신의 열등함을 모르는 흑인을 단죄하는 대표적 방식인 린칭은 대개 거세를 동반하는데, 이는 흑인 남성을 여성화함으로써 백인 남성과 대등해지려는 흑인의 욕망을 거세하고 나머지 흑인에게도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목적을 수행한다. 떡갈나무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흑인의 주검과 거세된 흑인의 피로 얼룩진 스페인 이끼는 모두 '견딜 수 없는 상실'의 정도를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딜 수 없는 상실'을 다시 한번 견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애도의 의식 때문이다. 교회에 모인 조문객이 사자를 위한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희생자의 죽음을 기억하는 방식은 흥미롭다. 대문자로 쓰인 희생자의 이름은 아래의 글과 다소 조화롭지 못한 느낌을 자아내지만 바로 이 부조화의 형식이 고인을 위한 추도 연설의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고인을 추모하고 애도하는 태도이다. 존 F. 케네디와 로버트 케네디와 같은 유명한 정치인, 체 게바라, 맬컴 X, 킹 목사, 메드거 에버스, 조지 잭슨과 같은 유명한 사회 운동가와 지도자, 콩고 민주공화국의 독립운동가이자 초대 총리 패트리스 라뭄바는 물론이고, 신시아 웨슬리, 애디 매 콜린스, 드니스 맥네어, 캐롤 로버트슨, 바이올라 리우조처럼 꽃다운 나이에 흑인의 인권을 위해 애쓰다 목숨을 잃은 소녀들까지 희생자를 애도하는 태도가 매우 공평하다. 이는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나 사회 지도자라고 해서 무명의 인물이라고 해서 생명 가치의 경중이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1963년 암살된 케네디 대통령의 생명이나 1965년 워싱턴 행진에 참여한 후 귀갓길에 살해된 바이올라 리우조의 생명은 모두 소중하다. 이러한 공평한 애도 방식은 '견딜 수 없는 상실'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회복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죽음의 편재성, 그리고 죽음에 관한 기억의 파편은 흑인 민권운동이 일어나기 훨씬 이전 시기로 확장된다. 흥미롭게도 기억은 과거에 관한 것이지만 과거는 "현재라는 렌즈를 통해" 현재 자아의 필요에 맞게 재구성된다(Fernyhough,

200).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점철된 현재 시점에서 1960년 이전 시기를 재구성하면, 미국의 역사는 시작부터 죽음으로 점철된 것이나 다름없다. 워커는 『머리디언』의 제명 epigraph에 라코다 Lakota 부족 출신 검은 고라니 Black Elk의 글 『검은 고라니는 말한다 *Black Elk Speaks*』의 일부를 발췌 수록한다. 1890년 12월 29일 미군과 원주민 사이에 벌어진 마지막 전투로 기록된 운디드니 학살 사건 Wounded Knee Massacre 당시 원주민을 무장해제시키는 과정에서 무려 삼백여 명에 가까운 원주민이 희생되었다. "도살된 아낙네와 아이들이 굽은 협곡을 따라 수북이 쌓여 흩어져 있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는 검은 고라니의 탄식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이 미국(인)다움이란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폭력과 희생이 발생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Meridian*, epigraph). 원주민의 존재를 부정하고 전인미답의 처녀지에서 미국이 건국되었다는 국가적 수사를 고려하면, 검은 고라니의 탄식 글은 원주민은 물론이고 흑인 노예 등 미국이라는 국가가 단일 목소리를 내는 거대 국가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목숨을 잃은 사람들 모두를 추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기억이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은 국가가 역사를 재구성하는 과정과 동일하다. 기억이 파편으로 존재하는 과거의 기억을 나중에 일관성 있는 서사가 되도록 재구성하는 것처럼, 미국의 거대 역사 역시 자유, 평등, 행복추구권 등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강조하는 "헌법적 가치와 미국적 방식의 우월함을 칭송하는" 방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Meridian*, 126). 이 과정에서 미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만들어낸 (건국의) 아버지들 이전에 (원주민)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의도적으로 지워지고 망각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Walker, 1988:145). 이런 이유에서 원주민의 희생에 대한 검은 고라니의 기억과 한때 원주민의 터전이자 원주민의 무덤이 있던 '신성한 뱀 Sacred Serpent'에 대한 머리디언의 기억이 중요하다. '신성한 뱀'에 관한 머리디언의 기억은 아버지에 관한 시각 이미지와 부모님의 대화를 듣고 귀동냥으로 알게 된 파편적인 정보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콩과 옥수수, 호박을 재배하던 정원의 소유권을 체로키족 Cherokee의 후예 월터 롱나이프 Walter Longknife에게 양도했다는 것, 증조할머니가 '신성한 뱀'에서 황홀경을 느낀다는 것,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신성한 뱀'의 똬리를 튼 꼬리 부분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다녀오면 늘 온몸에서 밝은 빛이 나온다는 것 정도의 단편적이고 파편화된

정보는 후에 재구성되면서 머리디언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캐피털 인디언 박물관에서 그녀[머리디언]는 판유리를 통해 한 전사의 뼈를 들여다보았는데, 전사는 앞니가 빠진 채 웅크린 자세로 파헤쳐진 그 상태로 뻔뻔하게 전시되어 있었으며 화살과 점토 파이프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 광경을 보고 그녀는 살아 있다는 것에 메스꺼움을 느꼈다.
>
> In the Capital's museum of Indians she peered through plate glass at the bones of a warrior, shamelessly displayed, dug up in a crouched position and left that way, his front teeth missing, his arrows and clay pipes around him. At such sights she experienced nausea at being alive. (*Meridian*, 54)

원주민의 무덤이었던 '신성한 뱀'은 공원이 되면서 관광지로 탈바꿈된다. 원주민 박물관을 방문한 머리디언은 과거 '신성한 뱀'과 관련된 어린 시절의 기억을 재구성하는데, 그 과정에서 당시에는 강렬하여 "지워지지 않지만" 파편화되어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던 섬광기억 flashbulb memory[5]의 간극을 채우게 되면서 원주민의 존재와 그 비극적 운명의 의미를 그제야 깨닫게 된다(Fernyhough, 176).[6] 사람들은 이제 공원이 된 '신성한 뱀'에서 "웃고 소리치며" 즐기지만, 원래 그곳의 주인이었던 체로키족 원주민은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존재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의 구경거리로 전락했다는 점이다(*Meridian*, 54). 누군가에게는 박물관에 전시된 원주민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뻔뻔하게' 보이겠지만, 원주민의 무덤에서 사자들에 둘러싸여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우주적 관점에서 자신의 존재가 "창조의 점이자 티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머리디언은, "자신이 태어나기 수 세기 전에 사망한 원주민에 대한 연민"을, 그리고 미국이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영원히 사라진" 원주민을 '뻔뻔하게'도 박물관에 전시한 행위 자체에 대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된다(*Meridian*,

5) 퍼니하우에 따르면 섬광기억은 다양하고 선명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기억으로, 보통 자신과 관련 있는 특별한 사건일수록 섬광효과가 강하고 잘 지워지지 않는 특징이 있다(Fernyhough, 176).

6) 워커는 1983년「모든 것이 인간이다 Everything is a Human Being」라는 제목으로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수행한 연설에서, 백인을 타인 및 환경과의 조화가 결여된 존재로, 자연과 생명을 경시하는 "잔인함 unnaturalness"으로 그 특징을 규정하였다(Walker, 1988:148).

51, 52, 54).

파편화된 기억의 간극을 메우고 잘못된 해석을 수정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치유의 과정이다(Fernyhough, 201). 머리디언의 경우 이 치유 과정이 애도의 방식으로 나타난다. 머리디언은 미국의 정체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그리고 영원히 사라진 것의 의미"를 찾게 된다(*Meridian*, 54). 버틀러 Judith Butler가 지적하듯이 누군가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Butler, 394-396). 머리디언의 애도 대상은 원주민은 물론이고 민권운동을 하다 목숨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인종차별의 폐해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머리디언의 애도 방식이다. 프로이트 Sigmund Freud에 의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시작되는 애도는 흔히 삶에 대한 평상시 태도에서 "심각한" 이탈을 초래하지만(Freud, 243), 머리디언의 애도 방식은 세상 밖으로의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안을 향한다. 머리디언의 애도는 흑인 투표권 독려 운동을 하던 근거지가 폭파된 사실을 뉴스로 알게 되면서 본격화된다. 이 사건 이후 머리디언은 잊고 있었던 원주민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고 "세상에서 물러나 있던 삶"에서 벗어나 "더 큰 세상의 과거와 현재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망자를 애도하기 시작한다(*Meridian*, 16, 70). 그 결과 머리디언은 투표가 흑인의 "죽음에 맞서는 가장 작은 저항"이라는 믿음에서 흑인의 투표권을 독려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Meridian*, 209).

애도를 통해 머리디언이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의 자아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고작 열일곱의 나이에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행복하지 않은 결혼 생활과 아이 양육, 이혼을 거치며 "무기력한" 생활을 이어가던 머리디언의 삶은 적극적으로 삶의 현실에 뛰어들면서 변화하기 시작한다(*Meridian*, 67). 여기서 주목할 점은 머리디언이 흑인 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맞이한 변화의 양상이다. 머리디언은 흑인 민권운동 근거지를 직접 찾아가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자유를 위한 행진 freedom march에 참여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머리디언은 커네티컷 주 출신 백인의 후원을 받아 애틀랜타 소재 색슨 대학 Saxon College에 입학하게 된다. 이후 머리디언은 "오늘의 말을 내일 행동으로" 실천하려 노력하면서, 1970년 비폭력 방식의 흑인 민권운동이 시들해진 후에도 여전히 남부의 "작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며" 투표를

독려한다(*Meridian*, 14, 19). 이렇듯 머리디언은 애도를 통해 더 큰 세상을 인식하고 그 결과 일층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애도의 방식을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머리디언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애도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다. 버틀러가 지적하는 것처럼, 애도는 나와 너의 관계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슬픔을 느끼고 애도하는 것은 사적 영역이 아니라 공적 영역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Butler, 388-390). 그렇다면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머리디언이 애도를 통해 공적 차원에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었는가에 관한 것이다. 흑인 민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도 혁명을 위해 살인을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던 머리디언은, 젊은 흑인 민권운동가의 죽음을 추모하는 어느 침례 교회의 의식을 통해 애도의 본질과 그 중요성, 나아가 자신의 역할을 깨닫게 된다. 머리디언은 처음에 추모 의식을 주도하는 목사가 마치 킹 목사를 흉내 내는 것 같아 불편함을 느끼지만, 추도 의식에 모인 사람들이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는 방식에서 "공동체 의식과 연대의 중요성, 그리고 다 같이 올바른 의견을 수렴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Meridian*, 219). 이는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애도의 특별한 힘에서 비롯한다. 추도 의식에 참여한 사람들은 "망자의 죽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며 망자가 (살아) 돌아온다면 목숨 바쳐 망자의 목숨을 살릴 것"이라며 망자의 가족을 위로하고 서로 하나가 된다(*Meridian*, 219). 공동체 의식과 연대에의 희망을 발견한 머리디언은 평소 숨 막히게 답답했던 교회 안에서 드디어 "자유롭게" 숨을 쉬게 된다(*Meridian*, 219). 이처럼 애도는 사람들을 하나가 되게 한다. 흑인 민권운동을 함께한 동지였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지만, 비극적 사건 이후 소원해지고 서로 극단까지 치달았던 린과 트루먼 부부 역시 그들의 혼혈 딸 카마라 Camara가 죽음을 맞이하자[7] "드디어 함께 모여" 화해를 시도한다(*Meridian*, 191). 오갈 데 없이 쓰레기통을 뒤져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던 13세의 임산부 와일드 차일드 Wild Child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색슨 대학의 학생들은 대학 구내 예배당에서 아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일치단결하여 자신들을 저지하려는 학교 당국에 맞서 시위를 벌인다. 이처럼 사람들은 애도를 통해 하나가 되며 애도의 의식을 치르면서 공동체

7) 린과 트루먼은 트루먼의 친구이자 동지가 린을 겁탈하면서 관계가 악화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이들의 딸 카마라는 당시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공격을 받아 결국 사망한다.

와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애도한다는 것은 생명과 삶의 중요성을 긍정하는 것이다. 머리디언에게 생명을 존중하는 것은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살아가고 삶의 한 조각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한다(*Meridian*, 219-220). "과거에 붙잡혀" 자살을 생각할 만큼 무기력하고 우울했던 머리디언은 애도를 통해 삶은 물론이고 자신의 존재성을 긍정하게 된다(*Meridian*, 14). 이제 머리디언은 "그 (힘든) 시간과 장소를 살아남은 생존자요 공동 운명의 목격자"이자 "사람들의 기억을 올바르게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자처한다(*Meridian*, 199, 220). 이처럼 머리디언은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영원한 동지 each other forever"를 통한 "미래에의 희망"을 긍정한다(Walker, 1983:128, 129). 그렇다면 머리디언이 흑인 민권운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긍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이고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III. 흑인 민권운동, 그리고 존재하기

워커는 "흑인 민권운동은 죽었다"는 주장에 맞서 흑인 민권운동이 흑인에게 빵과 피난처, 지식과 자부심, 위로, 살아갈 목적을 주었으며 무엇보다 흑인의 예속 상태를 끊어내는 데 일조했음을 강조한다(Walker, 1983:128). 그 대상이 무엇이든 예속 상태가 지속되면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그 결과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더 큰 세상을 인식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워커에게 지식, 즉 아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다는 점이다. 워커에게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가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Walker, 1983:125), 내가 어떤 것에 예속되어 있는지를 깨닫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려 노력하는 것이 곧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자 존재하는 것이 된다. 이렇듯 워커가 주장하는 것처럼, 과연 흑인 민권운동이 예속 상태를 벗어나게 하여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데 일조하는지 흑인 민권운동의 유효성에 대한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실제 흑인 민권운동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다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종과 성, 계급의 위계질서가 공고한 미국 남부 사회에서, 가족과 교육, 법

제도 등에 의해 기존 사회 질서가 유지 강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흑인, 특히 흑인 여성이 예속 상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 색슨 [대학]에 대해 말을 하자면 티끌 하나 없는 흰 장갑만 끼면 거기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장갑은 깨끗하고 하얗게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사실, 머리디언과 다른 학생들은 자신들에게 두 개의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이, 이미 쓸모없어진, 숙녀가 되기를 바라는 색슨 [대학], 그리고 더 크고 치명적인 적은 백인 인종차별주의 사회.

> A saying about Saxon was that you could do anything there, as long as you wore spotless white gloves. But because the gloves must remain clean and white, there was very little you could do. In fact, Meridian and the other students felt they had two enemies: Saxon, which wanted them to become something—ladies—that was already obsolete, and the larger, more deadly enemy, white racist society. (*Meridian*, 95)

머리디언을 비롯한 흑인 여성을 예속하는 것은 인종차별주의, 그리고 여성의 종속과 정숙을 강조하는 가부장제 사회 체계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머리디언은 더 큰 세상에 대해 알기 위해 아이 양육을 포기하고 색슨 대학에 입학한다. 머리디언이 자신의 갓난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숫처녀만을 허용하는 색슨 대학의 입학 규정 때문이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여성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순수한 숙녀여야 한다고 강요하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머리디언을 포함한 색슨 대학 학생들은 "흠잡을 데 없는 맞춤 가부장" 총장의 지휘 아래 "마치 13세 소녀처럼" 숙녀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아야 했다(*Meridian*, 36, 93). 이들이 색슨 대학에서 배운 것은 독일 음악을 듣고 프랑스 음식을 만들고 영국 홍차를 끓이는 방법처럼 숙녀가 되기 위한 기본 소양에 국한되었으며, 더 큰 세상에 대해, 이를테면 인종 문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리고 빈부 격차 등 어두운 사회 현실에 대해 접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다.

숙녀 양성소나 다름없는 색슨 대학에 딸을 보낸 부모는 물론이고 당시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은 바로 "순종적인 딸 Obedient Daughter"로 "헌신적인 아내 Devoted Wife"로 살다가 "죽음 Gone Wrong"을 맞이하는 것이었다(*Meridian*, 4). 인종과 상관없이 흑인과 백인 여성 모두에게 "족쇄 a ball and

chain"를 채우는 가부장 사회의 참담함은 자신이 살해한 아내의 "바싹 마른" 시신을 화려한 서커스 마차에 싣고 다니며 돈벌이하는 백인 남성 헨리 Henry O'Shay의 모습에서 극대화된다(*Meridian*, 65, 5). 헨리는 화려한 금빛의 큼지막한 글자로 "메를린 오셰이, 세계 12대 인류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 죽은 지 25년이 되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존됨 Marilene O'Shay, One of the Twelve Human Wonders of the World: Dead for Twenty-Five Years, Preserved in Life-Like Conditions"이란 문구 아래 아내 메를린의 일생을 '순종적인 딸', '헌신적인 아내', '죽음'으로 요약하지만, 기실 이는 모두 거짓이다. 아내의 부정을 알게 된 헨리는 아내의 내연남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시신 두 구를 솔트 레이크 Salt Lake에 유기하는데 아내의 시신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아내와 그 내연남을 살해한 헨리는 목사와 피해자 가족을 포함해 모든 사람의 용서를 받고 살인에 대한 형벌을 면하지만,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한 메를린은 목숨을 잃고 죽어서도 남편에 대한 헌신을 강요받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머리디언』에는 품행이 단정치 못한, 정숙한 숙녀상에서 벗어나는 인물의 죽음이 곳곳에 등장한다. 13세의 떠돌이 임산부 와일드 차일드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미혼의 메어리 Mary는 색슨 대학 내 타워 홀 Tower Hall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후 아이를 토막 내 변기에 버린 사실이 발각되면서 창문도 없는 방에 감금된 지 3달 만에 자살한다. 이렇듯 정숙하지 못하고 숙녀답지 않은 여성은 한결같이 죽음으로 단죄된다.

정숙한 숙녀에 대한 요구는 흑인 민권운동가 사이에서도 유효하다.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흑인의 인권 신장을 위해 목숨도 불사하지만, 흑인 남성들은 여성보다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트루먼이다. 일 년 동안 아비뇽과 파리에서 거주했던 트루먼은 상대방이 불어를 하지 못해도 불어를 섞어 대화할 정도로 불어와 외국문화를 사랑한다. 소양이 높은 자신에 어울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완벽한" 숫처녀를 원하는 트루먼은 그야말로 "자만심이 강하고 가식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다(*Meridian*, 151, 99). 머리디언이 과거에 결혼을 했었고 아이를 버렸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트루먼은 혐오감에 치를 떨며 머리디언을 "야만인 savage"으로 간주하지만, 정작 본인은 흑인 민권운동가에서 예술가로 전향한 후 "정복자 왕자"처럼 인종을 가리지 않고 사진 모델과 잠자리를 함께하는 위선적인 인물이

다(*Meridian*, 151, 99). 트루먼이 흑인 머리디언 대신 백인 린과 결혼을 한 것 역시 흑인 여성보다 백인 여성이 자신과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흑인 민권운동이 흑인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흑인 민족주의로 대세가 기울자 트루먼은 아내 린과 딸 카마라를 버리고 흑인 여성을 "새로운 우주의 전사를 낳는 웅장한 거인"으로 찬미하기 시작한다(*Meridian,* 183). 이처럼 '트루먼 Truman Held'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이상을 실천하는 '진실한 남자 true man'가 아니라 남성 우월주의에 '붙잡혀 있는 held'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인물에 불과하다.

여성에 대한 트루먼의 위선적인 면모는 친구이자 동지인 타미 Tommy Odds가 아내 린을 겁탈한 후의 반응에서 극대화된다. 타미는 백인이 쏜 총알에 한쪽 팔을 잃은 것이 백인 린 때문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복수로 린을 겁탈하는데, 타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방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타미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흑인 능욕자 신화 black beast rapist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전유하는데, 이 과정에서 타미는 흑인 능욕자 신화의 희생자와 가해자를 교묘하게 역전시킨다. 타미는 백인 린과 어울린 것 외에 팔을 잃어야 할 만한 잘못이 자신에게 없다는 관점에서, "백인 여성의 거짓말"에 무고한 흑인 남성이 린칭을 당해야 했던 남부의 역사를 재구성한다(*Meridian*, 164). 그 결과 타미는 린을 겁탈한 것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린이 백인이라서 생긴 일이고 린의 잘못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더 나아가 타미는 린의 "하얀 몸뚱이는 흑인의 절망에 대한 제물"이고, 백인이라는 죄를 린이 "속죄"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모든 책임을 린에 돌린다(*Meridian*, 175, 179). 트루먼은 이러한 자기 합리화를 추구하는 타미의 논리가 "복잡하지만 완벽하다" 믿으며, 흑인에게 능욕당하고 싶은 환상이 린에게 있었음을 인정하고 린의 말을 믿지 않기로 한다(*Meridian*, 177). 이제 백인과 흑인 남성 모두에게 린은 숙녀의 기준에 미달하는 존재가 된다. 흑인 능욕자 신화의 수사에 따라 흑인 남성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존재였던 린은 숙녀다움을 상실하면서 흑인이면 마약쟁이라도 상관없이 잠자리를 함께하는 "매춘부"이자 "점령지 conquered territory"로 철저하게 강등되고 흑인화된다(*Meridian*, 146, 180, 173). 흑인화된 백인 여성 린은 백인 사회에서도 흑인 사회에서도 배척당한다. 이처럼 여성에 대한 트루먼의 이중적 태도는 흑인 민권운동의 변화는 물론이고 흑인 민권운동 진영 안의 모순과 한계, 특히 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1966년 흑인의 인

종적 문화적 자부심을 강조하는 블랙 파워 운동 Black Power이 등장하고 1968년 킹 목사가 암살되면서, 인종 통합 방식의 비폭력 흑인 민권운동은 점차 인종 분리 방식의 급진적 운동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흑인 남성을 중심으로 한 전체주의적 성향이 강화되고 여성을 배경 취급하면서 중간 지도자로서의 흑인 여성의 위치가 격하되고 린과 같은 백인 여성은 흑인 민권운동에서 아예 배제되었다. 흑인 민권운동 진영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린과 머리디언의 삶에 전기가 된다. 린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머리디언 역시 비밀리에 트루먼의 아이를 낙태하고[8] 흑인 민권운동 진영을 떠나 홀로 남부의 시골 마을에서 투표 독려 운동을 하기 시작한다. 스타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트루먼은 흑인 민권운동의 한계를 드러내는 존재이자 동시에 머리디언과 린 등 여성이 오롯이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들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Stein, 136).

가부장제 사회 질서에 예속된 여성이 그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은 바로 죄책감과 수치심을 극복하는 것이다. 『머리디언』 작품 전반을 관통하는 기억의 파편이 죽음이라면, 흑백 상관없이 여성 등장인물의 기억에는 유독 죄책감과 수치심이 가득하다. 수치심과 죄책감 모두 부정적인 감정이지만, 비들 Jennifer Biddle에 의하면, 규칙이나 규범과 관련 있는 정서로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자신이 규범을 따르지 않아 다른 사람이 고통을 느끼는 것에 대한 감정이 죄책감이라면, 수치심은 규칙과 무관하게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한 데서 비롯하는 감정이다[9](Biddle, 117). 따라서 수치심은 행위가 아니라 존재와 관련된 감정으로 자기가 사라지면 좋겠다는 자기소멸 self-efface 욕망과 맞닿아 있다. 우울과 자기 폄하, 자존감 저하, 자책, 마비와 무기력으로 나타나는 수치심의 양상이 유독 여성에 두드러진 것은 수치심이 여성만의 몫이라 간주하는 경향 때문이다(Biddle, 115-117). 예를 들자면 트루먼은 자신의 위선적 면모에 대해서는 수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며 린의 비극에

8) 흑인 민권운동 진영에서도 성에 따라 흑인 여성의 낙태를 바라보는 인식이 상이하다. 흑인 여성은 낙태를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통제하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간주하지만, 당시 남성 흑인 민권운동가들은 흑인 인구수가 감소할 것에 대한 우려와 여성을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에 낙태를 반대하였다. 낙태 및 가족 계획에 대한 흑인 남성과 여성의 입장 차이는, 흑인 여성이 흑인의 발전과 흑인 여성이 발전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Ross, 150-156).

9) 로잘도 Michelle Z. Rosaldo는 수치심을 사회적 기대의 시선으로, 죄책감을 내적 원리와 규칙의 소리로 규정한다(Rosaldo, 92)

대해서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지만, 바람직한 여성상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머리디언과 린에게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강요한다. 정작 죄책감을 느껴야 할 타미 역시 린에게 백인으로서 느껴야 할 죄의식 white guilt을 강요하고 자신의 행위가 겁탈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수치심과 죄책감이 학습되고 내면화된다는 것이다. 죄책감을 내면화한 린은 타미와 달리 수치심과 외로움, 두려움에 자살 충동을 느낀다. 죄책감과 수치심은 성과 인종 질서의 접점에 존재하는 백인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흑인 여성 또한 죄책감과 수치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백인 여성 린의 경우처럼 흑인 여성 머리디언의 수치심과 죄책감 역시 인종과 성의 질서와 관련 있는데, 특히 부모 자식 관계, 흑인 모성애와 관련된 수치심과 죄책감을 주목할 만하다.

> 머리디언은 흑인 민권운동에 몰두하지 않을 때 규칙적이고 강렬하게 그녀의 생각이 어머니에게 향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설명에 의하면, 그녀는 원초적이라 할 수 있는 죄책감의 파도를 연이어 견뎌냈다. 그녀는 교회에 있는 어머니를 상상해 봤다. 어머니는 자신의 삶에 아직 남아있는 모든 활력을 교회에 쏟아부으며, 뭐가 됐든 딸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이해도 없으면서 딸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다. [...] 머리디언은 어머니를 흑인 모성애의 화신으로, 끔찍하리만큼 경외심을 느끼는 위대한 기관으로 생각했다.
>
> Meridian found, when she was not preoccupied with the Movement, that her thoughts turned with regularity and intensity to her mother, on whose account she endured wave after wave of almost primeval guilt. She imagined her mother in church, in which she had invested all that was still energetic in her life, praying for her daughter's soul, and yet, having no concern, no understanding of her daughter's *life* whatsoever; [...] Meridian thought of her as Black Motherhood personified, and of that great institution she was in terrible awe, [...] (*Meridian*, 96, 원문강조)

머리디언과 어머니 힐 부인 Mrs. Hill의 관계는 다소 복잡하다. 흑인 모녀의 관계가 복잡한 것은 이들의 관계가 노예제의 유산과 맞물리면서 흑인 여성에게 모성애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불가능했던 노예제 시절의 경험 때문에 흑인 여성들에게는 아이를 자기 손으로 키우

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자 “위대한 축복”으로 간주되어왔다(*Meridian*, 90). 이렇게 흑인 모성이 신화화되면서 모성을 위해 개인의 욕망을 포기해야 했던 흑인 어머니는 자식이 자신에게서 “무엇을 훔쳐 갔다” 생각하게 되고, 어머니의 이러한 태도 때문에 자식은 “처음부터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Meridian*, 43). 딸의 삶에 무관심한 힐 부인의 유일한 관심은 선에 도달하고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인데, 힐 부인에게 선과 정의는 바로 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다. 기존 사회 질서를 옹호하는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힐 부인은 흑인 모성애를 신성시하고 백인 우월주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그 결과 힐 부인은 흑백 분리법인 짐 크로우 법을 옹호하고 머리디언이 민권운동에 동참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한다. 힐 부인은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고, 빳빳하게 풀을 먹이고 모든 힘을 쏟아 다림질한 옷을 아이들에게 입히면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 ‘흑인 모성애의 화신’이 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모성애가 없는 인물이다. 그 결과 성장 과정에서 머리디언은 “상냥해야 한다”는 말 외에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조언도 현실적인 도움도 받지 못했을 정도로 힐 부인의 관심 밖에 있었다(*Meridian*, 55). 머리디언과 힐 부인의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게 된 것은 머리디언이 색슨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아이를 포기하면서부터이다. 맹목적으로 흑인 모성애를 신봉하는 힐 부인에게 머리디언은 그저 “모성애의 표준 standard of motherhood”에 미달하는 “괴물”이요 “수치심에 목을 매달아 죽어야 하는” 존재에 불과했고, 이처럼 강요된 수치심을 머리디언이 내면화했기 때문이다(*Meridian*, 90, 88). 이처럼 흑인 여성의 모성애를 강조하는 것은 모성이라는 기능으로 여성을 축소하는 것이기도 하다(Christian, 247). 힐 부인이 요구하는 모성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머리디언은 ‘원초적 죄책감’에 말을 더듬을 정도의 두통과 수면장애, 탈모, 마비 증상과 시력 악화 등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급기야 식욕마저 상실하게 된다.

이처럼 여성이 예속 상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여성이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끼도록 사회가 만든다는 데에 있다. 사회가 강요하는 수치심과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은 현재의 렌즈를 통해 과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렌즈가 바뀌면 바뀐 렌즈로 들여다보는 과거도 세상도 변화한다. 이를 원용하면, 머리디언이 아이 대신 대학을 선택한 것은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 아이와 자신을 구원한 행위가 된다. 당시 임신이 무엇인지도 잘 몰랐을 정도로 현실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된 머리디언은 큰 충격을 받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밤 아이가 울기 전에 아이를 죽이고 또 자신도 목숨을 끊을 방법을 모색한다. 이런 상황에서 머리디언이 아이 대신 대학을 선택한 것은 두 명의 목숨을 구한 셈이 된다. 이렇게 현재의 렌즈로 과거를 재구성하면 과거가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머리디언이 예속 상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보다 근원적으로 머리디언이 예속 상태를 벗어나는 방법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을 제거하거나 해결하는 것이다. 머리디언이 '원초적 죄책감'을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포기해야 했던 친자 대신 다른 누군가의 엄마가 되어주는 것이다. 이는 원래 흑인 사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대리모 community othermother 문화와 맞닿아 있다. 대리모 문화는 흑인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리적 차원의 엄마를 심리적, 사회적 차원으로 확장하는 효과가 있다(Collins, 129-131). 누군가의 대리모가 되어주려는 머리디언의 첫 번째 시도는 와일드 차일드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실패로 끝나지만, 두 번째 시도는 매우 인상적이다. 짐 크로우 법을 폐지하라는 연방정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 당국이 흑인의 공영 수영장 사용을 금지하자 저수지에서 물놀이하던 5살 소년이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틀이나 물속에 있었던 시신은 기이하게 일그러져 "아이의 엄마가 만지는 것을 거부할 만큼" 보기 역겨울 정도로 부패가 심했다(*Meridian*, 209). 부당한 짐 크로우 법의 위법성과 소년의 억울한 죽음을 항의하기 위해 머리디언은 생물학적 엄마로부터 거부당한 5살 소년의 시신을 당시 회의가 진행 중이던 시장실까지 운구한다. 시신의 부패 냄새가 무척 심했을 텐데도 머리디언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에 소년의 시신은 "줄기가 긴 장미 꽃다발"처럼 보이고 시신에서 "달콤한 냄새"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Meridian*, 209). 에밋 틸 Emmett Till[10]의 죽음을

10) 최근 1960년대 중반 흑인 민권운동의 시작을 에밋 틸의 죽음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면서 에밋 틸의 죽음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이들은 로자 팍스와 킹 목사의 버스 보이콧에 에밋 틸의 비극적 죽음이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한다(Tell, 121). 1955년 시카고 출신의 14세 소년 에밋 틸은 미시시피 주 소재 삼촌 집을 방문한다. 에밋 틸은 백인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여주인에게 휘파람을 불었다는 이유로 린칭을 당하고 시신은 유기되었다. 물에 잠겼던 시신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지만, 에밋 틸의 모친은 장례식에서 고문을 당한 에밋의 얼굴을 세상에 공개했다. 에밋을 고문하고 살해한 두 명의 백인은 재판을 받았지만 무죄로 풀려나면서 에밋 틸의 죽음은 아직까지 미결 사건으로 남아있다. 다음은 사건기록을 토대로 에밋 틸의 죽음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시신은 평소보다 거의 두 배로 부풀어 있었

연상케 하는 소년의 시신 운구 장면은 머리디언이 사망한 소년은 물론이고 지역 사회 전체를 보살피는 대리모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로써 머리디언은 '원초적 죄책감'을 씻고 예속 상태에서 벗어날 자격을 얻게 된다.

『머리디언』의 여성 등장인물이 온전히 수치심과 죄책감의 예속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성을 구속하는 사회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사회 제도의 변화는 사회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머리디언이 흑인 민권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심각한 우울증과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가장 비극적인 인물인 린 조차도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하고 세상을 알게 되면서 "죽음보다 못한 운명"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Meridian*, 198). 린에게 죽음보다 못한 운명은 자신의 어머니처럼 세상을 전혀 모른 채 수치심에 예속되어 "멍청히 dumb" 살아가는 것이다(*Meridian*, 198). 이처럼 흑인 민권운동은 여성 스스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Evans, 84), 이는 곧 과거와 다른 내가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워커에 의하면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아는 것이 바로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롯이 존재한다는 것은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Walker, 1983:126).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하여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을 돌아다니고 직접 세상을 봄으로써 머리디언은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머리디언이 흑인 민권운동에 참여할 때 어머니 힐 부인에 대한 생각에서, 달리 말하면 흑인 모성애에 대한 죄의식과 수치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죄의식과 수치심의 예속에서 벗어난 머리디언은 아이를 포기한 자신의 과거를 용서하고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고 사랑하기 시작한다. 이제 머리디언의 용서와 사랑은 타인에게로 확장되고, 머리디언은 패륜아가 구속되어있는 감옥을 방문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머리디언은 친자살해라는 패륜을 저지르고 감옥에 수감 중인 죄수를 찾아가 투표를 독려하고 "나는 죄책감을 끝내고 싶어/ 나는 수치심을 끝내고 싶어/ 네가 무엇을 했든지 나의 자매여/ (나의 형제여)/ 너를 용서하고 싶다는 것을 알아줘/ 너를 사랑하고

다. 상처가 아물지 않은 목은 찢어져 있었다. 구타를 당하고 강물 속에 사흘이나 있었기에 얼굴과 머리는 악취가 진동하는 살덩이 같았다. 오른쪽 눈은 에밋의 뺨 중간쯤에 놓여 있었다. 목구멍은 혀로 꽉 막혀 있었다. 고기 칼로 여러 군데 난도질당한 것처럼 에밋의 코는 부러져 있었다. 에밋의 머리 오른쪽에는 커다란 총알구멍이 나 있었다"(Williams Jr., 33).

싶어 [...]"라는 내용으로 진심을 담아 꾹꾹 눌러 쓴 쪽지를 남긴다(*Meridian,* 235). 이처럼 한때 죄책감과 수치심에 예속되었던 머리디언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러한 머리디언의 심리적 변화는 물리적 변화로 나타난다. 대머리였던 머리에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하고 생기를 되찾고 건강을 회복한 머리디언은 "감옥"과 같았던 거처를 기꺼이 떠난다(*Meridian*, 9). '감옥' 같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게 된 머리디언이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투표를 독려하고 그들에게 존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리라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처럼 워커는 머리디언의 변화 과정을 통해 흑인 민권운동의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맞서 흑인 민권운동의 가치를 긍정한다. 더불어 머리디언의 모자와 '감옥' 같은 거처를 물려받은 트루먼이 머리디언의 방식을 좇는다면 그 역시 머리디언처럼 가까운 미래에 스스로 갇혀있던 남성 우월주의의 예속 상태에서 벗어나 오롯이 존재할 가능성을 예측 가능케 한다.

Ⅳ. 나가는 말

워커는 두 번째 장편소설『머리디언』에서 19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의 유효성을 긍정하기 위해 흑인 여성 머리디언을 중심으로 흑인 남성 트루먼, 유태계 백인 여성 린의 과거를 재구성하여 흑인 민권운동을 다층적으로 살펴보고 이들의 변화상에 주목한다. 과거를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것의 중요성은 마치 파편화된 과거의 기억처럼 여러 개의 에피소드로 이루어진『머리디언』의 형식과 맞닿아 있다. 또한 워커가 제명 뒤에 굳이 'meridian'이 무엇을 뜻하는지 사전적 의미를 한 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것도 과거를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것의 중요성과 무관하지 않다. 'meridian'의 사전적 의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천구에서의 자오선이다. 천구의 북극점, 천정(관측자의 머리 위), 천구의 남극점을 잇는 천구에서의 자오선은 관측자의 입장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관측지점이 달라지면 천정이 달라지고 자오선이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바로 이점은『머리디언』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하다.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 어느 시기의 렌즈를 통해 흑인 민권운동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기억과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색슨 대학 구내에 있는 거대한 목련 나무 소저너 Sojourner가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울퉁불퉁한 거대한 건물로 보이기도 하고, 촛불이 켜진 산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

처럼, 누가 어디에서 관측하느냐에 따라 흑인 민권운동의 한계가 부각될 수도 그 유효성이 부각될 수도 있다. 이처럼 기억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한다. 현재라는 렌즈를 통해 과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기억은 언제든 변할 수 있고 또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 새천년에 들어 미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가장 유명한 미국인에 킹 목사와 로자 팍스가 선정되었다는 점은, 흑인 민권운동의 무용론에 대한 1970년대의 평가와 작금의 평가가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여실히 드러낸다(Theoharis, ix). 과거 킹 목사를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로 보는 부정적 평가 때문에 1968년 법안이 상정된 지 무려 15년이 지난 1983년에야 킹 목사의 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점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Theoharis, 4). 이후 레이건 Ronald Reagan 대통령은 킹 목사를 미국의 심각한 불평등을 바로잡으려 행동을 취한 인물로 추앙한다(Theoharis, 5). 이와 유사하게 부시 George W. Bush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과 정의에 관한 건국의 약속"에 미국이 응답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칭송하며 로자 팍스를 두 번째 건국의 아버지 반열에 오르도록 승격시킨다(Theoharis, 8). 이제 미국의 모든 대통령과 대통령 후보가 중요한 순간에 언급할 만큼 흑인 민권운동과 그 운동가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요한 미국의 역사이자 자산이 되었다. 이에 발맞춰 최근 킹 목사와 로자 팍스에 관한 기념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런 현상을 마냥 좋아만 할 수는 없다. 흑인 민권운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박물관화하고 오용하는 것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의 몇몇 주에서 우편 투표를 인정하지 않거나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요구하는 등 투표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면 워커가 『머리디언』에서 했던 작업,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 흑인 민권운동을 돌아보고 기억하는 것이 흑인 민권운동의 가치를 이해하고 미래의 방향을 타진하는 데 유효할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구은숙, 「여성의 정체성 추구와 모성: 앨리스 워커의 『머리디안』과 맥신 홍 킹스턴의 『여인무사』를 중심으로」, 『영어영문학연구』, 40.2, 1998, 7-27.

Barnett, Pamela E. ""Miscegenation," Rape, and "Race" in Alice Walker's

Meridian", *Southern Quarterly*, 39.3, 2001, 65-81.

Biddle, Jennifer. "Shame",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9, 113-125.

Butler, Judith. "Violence, Mourning, and Politics",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9, 387-402.

Christian, Barbara.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Black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Collins, Patricia Hill.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Routledge, 1990.

Evans, Sara. *Personal Politics: The Roots of Women's Liberation in the Civil Rights Movement & The New Left,* New York: Vintage Books, 1980.

Fernyhough, Charles. *Pieces of Light: How the New Science of Memory Illuminates the Stories We Tell about Our Pasts,* New York: Haper Perennial, 2012.

Freud, Sigmund. "Morning and Melancholia", *On the History of the Psycho-Analytic Movement: Papers on Metapsychology and Other Works*, London: The Hogarth Press, 1975, 237-259.

Jones, Shermaine M. "Presenting Our Bodies, Laying Our Case: The Political Efficacy of Grief and Rage during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Alice Walker's *Meridian*", *Southern Quarterly*, 52.1, 2014, 170-195.

Lauret, Maria. *Alice Walk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11.

McGowan, Martha J. "Atonement and Release in Alice Walker's *Meridian*", *Critique: Studies in Contemporary Fiction*, 23.1, 2010, 25-67.

Nadel, Alan. "Reading the Body: Alice Walker's *Meridian* and the Archeology of Self", *Modern Fiction Studies*, 34.1, 1988, 55-67.

Pifer, Lynn. "Coming to Voice in Alice Walker's *Meridian*: Speaking Out for the Revolution", *African American Review*, 28.1, 1982, 77-88.

Plant, Deborah G. *Alice Walker: Women Writers of Color*, California: Praeger, 2017.

Rosaldo, Michelle Z. "Toward and Anthropology of Self and Feeling", *Emotions: A Cultural Studies Reader*, London: Routledge, 2009,

84-99.

Ross, Loretta J. "African-American Women and Abortion: 1800-1970", *Theorizing Black Feminisms: The Visionary Pragmatism of Black Women*, New York: Routledge, 1983, 141-159.

Stein, Karen F. "Meridian: Alice Walker's Critique of Revolution", *Black American Literature Forum,* 20.1, 1986, 129-141.

Tell, Dave. *Remembering Emmett Till*, Chicago: Chicago UP, 2019.

Theoharis, Jeanne. *A More Beautiful and Terrible History: The Uses and Misuses of Civil Rights History*, Boston: Beacon Press, 2018.

Walker, Alice. *Meridian*, New York: Harcourt, 1976.

_____, *In Search of Our Mothers Gardens: Womanist Prose*, New York: Harcourt, 1983.

_____, *Living by the Word*, New York: Harcourt, 1988.

White, Evelyn C. *Alice Walker: A Life*, New York: Norton, 2011.

Williams Jr., Walter. *Standing Up for Justice: The Emmett Till Murder Trial*, Bloomington: Authorhouse, 2011.

Woodward, C. Vann. *The Strange Career of Jim Crow*, Oxford: Oxford UP, 1971.

Kang, Jihyun (2022)
Remembering the Civil Rights Movement in Alice Walker's *Meridian*
Foreign Literature Studies, 87, 147-172.

Abstract

Alice Walker explores the waning year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and the emerging Black Power Movement in her second novel *Meridian*. Although the militant black activists consider the non-violent Movement is obsolete, Walker tries to affirm the value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by examining

the hearts and minds of a black female activist Meridian Hill in the midst of revolutionary social change. Meridian decides t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when she realizes that there are so many innocent losses of community leaders and activists. Her mourning for the losses and her involvement in the Movement helps her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communal spirit and overcome racism and androcentric perspectives. Remembering the Movement and revealing the process of Meridian's personal transformation, *Meridian* is a powerful reminder of the Movement's legacy.

[Alice Walker, *Meridian*, the Civil Rights Movement, memory, mourning]

예시언어(Examples in): Korean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 Secondary/College
논문투고일: 2022년 7월 5일
심사완료일: 2022년 8월 8일
게재확정일: 2022년 8월 9일